

## 돌의 주님

### 마태복음 27:57-28:15

#### Part 1

여러분은 매끄러운 돌을 주워 물 위로 던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돌 그림은 우리 윌링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팅코 웡**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4:1-7), 그들은 강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약속의 땅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섰을 때 (사무엘상 17:40), 그는 물매와 함께 강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승리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 돌.

우리의 현재 기쁨과 영원한 운명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 돌 하나를 다스리던 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둔 것일까요?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산산조각 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부유한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 행해진 일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 내 그의 높은 지위 덕분에 그는 예수님의 사형을 명령했던 빌라도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순간**, 사람들은 분리되고, 신념은 명확해지며, 미래는 결정됩니다.

요셉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불의한 사형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먼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게 하고 (마가복음 15:44), 사망이 확인되자 요셉에게 시신을 넘기라고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27:59~60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시신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신은 **해가 지기 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6시 이전에** 반드시 내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21:22-23).

요셉은 바리새인이자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마가복음 15:46; 요한복음 19:39).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 입고 훼손된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쌉니다. 이 일은 **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친밀한 헌신**의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9).

요셉은 새로 판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덤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으며, 중앙에 구멍이가 있고 세 면에 벤치가 놓인 단순한 구조의 방이었습니다. 낮은 입구는 **큰 돌**로 보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무덤은 지금까지 약 천 개가 발굴되었습니다. **원반 모양의 돌**을 사용한 무덤은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돌은 경사진 흙을 따라 굴러서 닫기에는 쉬웠지만,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입구 반대편에 있는 벤치 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매장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무도 그 무덤에 함께 묻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그대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도 머리 돌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요셉은 예수님께 쉼 곳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 1. 내려놓은 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곧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 맞은편에 앉아 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Part 2

장면은 다음 날, **토요일**로 전환됩니다. 무덤에서 이제는 **불안에 떠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로마 총독 빌라도와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뭔가 불길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 하늘을 덮었던 어둠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성전의 휘장...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63~64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돌을 완전히 봉인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거짓 부활을 만들어낼 경우, 그 속임수는 첫 번째 것,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주장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바라봅니다.

오직 빌라도만이 군인 배치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65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끈과 공식적인 인장을 사용하여 돌을 봉인합니다.

누군가 그 돌을 손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를 맡던 로마 군대의 정식 부대 군인과 같은 경비병을 배치합니다. 이제 이 모든 조치는 최종적인 안전 봉인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아적 주장은 이제 완전히 묻혔습니다. 영원히!

## 2. 봉인된 돌

그들은 그 돌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 이 돌의 주인이 누구인지입니다. 누가 그 돌 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스립니까? 돌을 봉인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가 도난당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무언가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 Part 3

일요일 이른 새벽, 두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저 무덤을 바라보며, 경의를 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용감한 여인들에게 있어, 그 돌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돌은 이야기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수단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울부짖습니다!

마태복음 28:2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는 마치 자신만의 태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는,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 돌 위에 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3. 보좌가 된 돌 (Stone Seat!)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가시기 위해 돌을 굴린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3-4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모습은 강력하고 순수하며, 충격적일 만큼 두렵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로마 군인들조차도 즉시 공포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죽은 자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 이제는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을 겁니다. 천사는 왜 그들이 거기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덤을 보러 왔지만, 이제 무덤이 열렸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찾고 있군요. 그런데 여긴 잘못된 장소입니다. 자, 보세요!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7-8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혼란, 경외, 그리고 흥분의 기묘한 뒤섞인 감정입니다.:**

1. **혼란:**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경이로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 **기쁨:** 무언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나신 걸까? 그저 무덤을 보기 위해 왔을 뿐인데...그들은 예수님이 눕혀졌던 그 빈 공간을 보았  
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분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6:32).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9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바로 그곳, 거기에 계셨습니다. 번개도, 지진도 없이... 그저 거기, 길 위 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정말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Bom dia"

"Buenos días"

"Bonjour"

"Guten Morgen"

"Привет" (Privet)

"你好" (Nǐ hǎo)

"네이호" (Cantonese)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Konnichiwa)

"Komusta ka?"

"Salem"

"Áramesh"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맞이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실제의, 물리적인 발입니다. 이것은 환상도, 환각도 아닙니다.그  
들은 부활하신 자신들의 왕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며, 부활하신 왕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10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보았으니, 다른 제자들에게도 배낭을 챙기라고 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2).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돌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말입니까? 혹시 우리가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와서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미친 사람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에 대해 하나님의 확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기대고 설 수 있는 기초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상급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 Part 4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몇몇 군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무덤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공모합니다. 이제 그들은 위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에게 많은 은을 뇌물로 주고, 백성들 사이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13-14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만약 이 사건이 로마 총독의 재판까지 간다면, 종교 지도자들도 총독에게 뇌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 다. 경비병들은 경비 임무 실패로 인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지도자들 스스로 빈 무덤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날까지도 퍼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돌이 굴러졌고, 군인들이 자는 사이에 시체가 도난당했다.”입니다.

#### 4. 침묵하는 돌?

정말일까요? 무거운 돌이 완전히 ‘조용히’ 굴러졌다고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돌의 이야기’를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공모한 제자들이 조용히 돌을 굴렸다는 이야기.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진짜 증거를 가진 기적은 단 하나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빈 무덤 (종교학자들 비종교학자들 모두 동의합니다) 전체 이야기의 진정성 – 1세기의 조작된 이야기가 여인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삼았을 리 없습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도 신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고, 그 부활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복음서 4권의 고대 역사 기록들 – 그 신뢰성은 기독교 학자들뿐 아니라 비기독교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몇 년 내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자유주의적인 학자들도 그 진위를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3~6

-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것은 물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지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어,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 죄책감과 수치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21

...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골로새서 2:12-14). 죽음의 쏘는 것을 없애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마음을 원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살아 있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가려져 있다면, 예수님의 신성한 빛이 여러분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여실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을 파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돌로 봉인되어 있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돌을 굴러 치우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함께 일어섭시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대로 살며 죄 가운데 살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영혼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새 생명을 주세요.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에게 알려주시거나, 웰컴 센터 또는 기도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 여정을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아직도 의심과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게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축도: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x3)**

예수님은 살아 계시며, 그 이야기 또한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웰컴 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과 연결되어 소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